

“파라과이여, 다시 태어나라”(Paraguay must be born again)(요3:7)

Esperanza del Paraguay; 파라

이의 희망

파라과이 선교 동역자님 귀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시는 제단과 가정 모두 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름의 많은 사역들과 행사들 또 휴가를 뒤로하고 이제는 차하게 정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무덥고 뜨거웠던 날씨는 물러가고 제법 청명한 가을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하~ ‘파라과이 선교사가 파라과이 날씨가 아니라 한국의 날 말하고 있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군요.

저는 지난 총회 참석 후 바로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9월 일에 미국으로 돌아가 선교지 건축을 위해 초청해 주신 몇 교회를 방문하고 10월 말에 선교지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선교 동역자 여러분! 저는 한국 방문을 계획하면서 우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 분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 선교사가 오랫동안 선교지를 비워도 되는가?
- *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치는 않을까?
- *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 마치 여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파라과이 동역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번 한국 방문이 오래 전 선교사로서 선교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때 선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 건축, 양계, 발농사, 미용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한 일환으로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농촌기술지원센터에서 농사의 기본적인 강의를 듣고 책들을 얻어 기초적인 농사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양계는 전북 남원에 위치한 양계장에서 재래식 양계장부터 최신 설비의 양계장까지 견학하고 실질적으로 학습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미용 기술을 기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선교지의 복합건물 건축을 위해 최소한 벽돌쌓기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아 기도 중에 있답니다. 또한 그동안 선교지에서 파라과이를 배우기 위해 발로 뛰고, 걸으며 지냈지만 이제는 자동차 구입을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으로 자동차 구입을 위한 목적도 한국 방문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중고트럭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트럭 사양: 2013년 형, 4WD, Double Cab.
22,000Km(13,500 miles)
\$13,000

농장 만들기 위한 관리기(경운기) 및 농기구 구입함.



자동차 구입을 위해 기도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트럭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파라과이에서의 빈민선교를 위한 가정회복교회를 향한 사역은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저를 돕는 Sra. Amada(세노라 아마다)를 통해 차질 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겨울 시즌에 비가 많지 않아 홍수를 피해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
평
분
날
씨를
22

한국 방문은 선교사역을 위한 일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필요한 건강검진도 함께 받았습니다.

목회 중에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했던 검진이었습니다.

아내는 30년 전에 방문하고 처음이라 너무 낯설어 하고

있지만 한국 방문을 통해 허리 디스크의 문제로

척추관협착증 시술을 받았습니다. 또 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돼

더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도 검사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건강검진 후 치과와 안과에서 더 치료를 받았습니다.

선교도 건강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기에 무너진 육체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면 감당해야 할 건축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사역의 확장을 위해 힘써야 하기에 더 순종하려고 합니다.

농사법을 배우고, 양계를 배우며 느낀 것은 농작물은 인간과 같이 땅 밑에서 흙들이 숨을 쉬어야 하고, 병아리들은 깨끗한 물과 계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결과물을 얻을 수 없듯이 성도들도 주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의 숨을 쉬어야 하고 영혼의 깨끗함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느냐 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나?’ 를 질문하며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파라과이 선교 동역자 분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가정과 섬기시는 제단과 그리고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파라과이 선교사

남학현, 남옥진 올림

<2016년 기도제목>

1.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2. 충분한 언어 구사를 위하여
3. 복합건물 1동 건축을 위하여(성전, 교사, 기숙사, 식당)
4. 희망 고아원 & 희망 무료기숙학교를 위하여
5. 농장 만들기를 위하여

P.S. 한 분 한 분께 개인적인 소식이 아니라 전체 소식으로 전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함이라 생각해 주세요.